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는 꽃을 피우고 가지를 뺏으며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가지와 뿌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지와 뿌리 사이를 끊어 놓으면 가지에 달린 꽃이나 잎은 시들 것이고, 잎이 시들면 뿌리 또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베를 짜는 일은 세로 방향의 날실[經]과 가로 방향의 씨실[緯]을 교직(交織)하는 일이다. 이때 날실은 베틀의 몸체에 고정되어 있고, 씨실은 북을 따라 날실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씨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씨실의 활동이 아무리 눈부시다 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날실이 없으면 베를 짤 수 없다.

전통과 현대는 바로 뿌리와 가지처럼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요, 날실과 씨실처럼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 구성 요소이다. 어느 한 쪽이 없이는 다른 쪽도 온전하게 성립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전통의 기반을 튼튼하게 확보함으로써 빠른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끝없이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건강하고 선진적인 현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 기술 문명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그 기반인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나] 문화혁명 당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공자 사상은 지배 구조를 합리화하고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자의 영향력은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지속되어 봉건 체제를 옹호해 왔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과시즘과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비판이었다. 문화혁명이 시작되자 마오쩌둥과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의 유교 문화를 공격하면서 낡은 생각, 낡은 문화, 낡은 전통, 낡은 관습 등 '네 가지의 낡은 과거[四舊]'를 철폐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은 '낡은 것 대 새로운 것'이라는 대립 구도를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외국 문화 숭배주의 대 민족주의'로 확대하였다. 공자는 과거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사상은 자본주의와 외국 문물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치부되었다. 혁명가들은 사원과 유적, 사당, 기념상, 경전 등 공자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낡고 부패한 체제를 극복하려 했다.

문화혁명 시기에 한 신문은 공자를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를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했다. 효와 우애를 찬양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노예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신문은 마찬가지로 이유를 들어 공자의 교육 철학을 공격했는데, 공자의 사상은 맹자에 의해 더욱 반동적인 사상으로 발전되어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폄하하였다. 공자 철학에서 강조해 온 절제와 침착의 미덕, 즉 '중용(中庸)'의 관념은 오랫동안 지배 귀족에 속하는 '군자'의 덕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존 질서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용'의 '중(中)'은 '예(禮)'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노예 사회의 질서를 전제로 하며, '용(庸)'은 '지속성'이나 '변화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중용이라는 개념은 노예제도의 원칙을 영구불변의 보편적인 질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혁명이 종료되면서 중국에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화혁명을 통해 사회적 가치관과 전통에 큰 타격을 입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이전의 혼란을 바로잡고 공산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목표는 문화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도덕적 질서가 강화되어야 했다. 공자에 대한 재해석도 이런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문화혁명 당시의 공자가 미숙한 공산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용되었다면, 혁명 이후의 공자는 더 포괄적이고 야심찬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만 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뒤처지고 있는 중국 사회에 권위를 부여하고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공자의 사당을 복원하고 공자에 대한 비판자들을 처벌하였다. 학자들은 공자의 사상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이전의 해석이 부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예'의 덕목도 조화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다] 의식적 지각(知覺, perception)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사실상 모든 지각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무언가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수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고 이것을 새로운 지각과 섞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현재 지각하는 것들을 대체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각은 단편적인 암시를 통해 과거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신호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다. 이로 인해 지각이 편리하고 신속해지는 것은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착각이 생겨나기도 한다. 기억으로 존속하는 과거의 이미지들은 현재의 지각과 끊임없이 뒤섞이면서 그것을 대체하기도 한다. 기억이 우리의 경험을 완성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은 더욱 풍부해지며, 기억의 양이 늘어날수록 현재의 경험은 점차 덮이거나 가라앉게 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실제적이면서 즉각적인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직관은 그 위에 추가되는 엄청난 기억에 비해 볼 때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직관 자체보다는 예전에 수집되어 저장된 직관들의 모음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억은 연속되는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우리의 판단에 훌륭한 안내자가 된다. 이는 곧 현재의 직관이 수행하는 주된 기능이 기억을 되살리고 그것을 능동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있음을 잘 말해 준다. 따라서 지각과 그것의 대상이 일치한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따름이다. 지각은 기억을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실제적인가의 여부는 그것이 기억을 불러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의 정도에 달려 있다. 즉각적인 직관은 실제의 일부로서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단순한 신호에 불과하다.

[라] 특정한 사진이 자아내는 친숙함은 현재와 얼마 안 된 과거를 둘러싼 우리의 감각을 형성한다. 사진은 감각의 옹고 그릇을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하며,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일종의 토템 기능을 한다. 말로 된 표어보다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의 정서를 훨씬 더 구체화한다. 나아가 사진은 좀 더 먼 과거를 둘러싼 우리의 감각을 구성하고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사진이 유포되어 우리에게 사후적으로 충격을 주는 경우가 그렇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사진은 그 사회가 한번쯤 생각해 보고자 선택한 것 또는 그렇게 표명된 것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기억’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결국 일종의 허구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단적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 죄의식과 같이 그럴듯한 관념일 뿐이다.

모든 기억은 개인적이며 다시 만들어질 수 없다. 기억이란 것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개개의 사람이 죽으면 함께 죽는다. 우리가 집단적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계약에 가깝다. 사진은 어떤 일의 중요성이나 발생 원인 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고착시킨다. 중요한 공동의 관념을 담고 있는 예측 가능한 생각과 감정을 촉발하는 재현적 이미지, 실증 기록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이데올로기이다. 곧장 포스터로 만들 수 있는 사진들, 가령 원자폭탄 실험 뒤에 생긴 버섯구름, 링컨 기념관에서 연결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2세,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등의 사진들은 중요한 사건들의 핵심을 전달해 주는 시각적 등가물이다.

모더니즘의 세기에 들어와 예술이 박물관에 모셔지게 될 무엇인가로 새롭게 규정됐듯이 오늘날에는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수집되어 박물관 또는 그와 비슷한 각종 시설에서 전시되고 보존된다. 공포의 순간을 모아놓은 각종 기록물들 가운데 집단 학살을 담아 놓은 사진이야말로 제도적으로 가장 발달된 기록물이다. 대중을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 자취를 기록해 놓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렇게 기록된 범죄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계속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계산된 거래에 가깝다. 사람들의 고통과 순교를 담은 사진들은 죽음, 좌절, 그리고 희생을 상기시켜 주는 것에서 나아가 생존의 기적까지 일깨워 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찾아가기를, 그리고 새롭게 되살리기를 원한다. 오늘날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기념관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알기 쉽게 연대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야기해 주는 일종의 사원파도 같은 곳이다.

1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제시문 [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억’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40점]

3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십시오. [30점]

평균값을 사용하는 일인당 소득이라는 지표는 사람들 사이에서 총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해지더라도 일인당 소득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분배적 측면을 파악하는 지표 중 개념적으로 간단한 것은 중간값을 사용하는 중위(中位, median) 소득이다.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인구의 절반은 이보다 많은 소득을, 또 다른 절반은 이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다. 중위의 개인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개인이다. 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면 중간값과 평균값 사이의 차이도 커질 것이고, 이럴 경우 평균값에만 주목한다면 전형적인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의 소득 증가분이 모두 상위 10퍼센트의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간다면 평균 소득은 증가하지만 중위 소득은 그대로일 것이다.

[표] OECD 국가들의 중위 소득 및 일인당 소득*

국가	중위 소득 (달러)	순위	20년간 연평균 증가율 (%)	일인당 소득 (달러)	순위	20년간 연평균 증가율 (%)
룩셈부르크	35,000	(1)	2.1	65,100	(1)	3.5
미국	31,000	(2)	1.0	38,600	(3)	1.7
노르웨이	31,000	(2)	2.2	40,400	(2)	2.6
아이슬란드	28,000	(4)	10.4	35,600	(5)	1.7
오스트레일리아	27,000	(5)	3.3	32,400	(9)	2.8
스위스	27,000	(5)	0.6	34,300	(6)	0.2
캐나다	25,000	(7)	0.8	31,600	(11)	1.6
영국	25,000	(7)	2.1	30,100	(15)	2.7
아일랜드	25,000	(7)	5.5	36,300	(4)	5.3
오스트리아	24,000	(10)	1.5	32,300	(10)	1.8
네덜란드	23,000	(11)	1.5	32,800	(8)	2.7
스웨덴	23,000	(11)	1.7	33,200	(7)	2.2
덴마크	22,000	(13)	0.9	31,500	(12)	1.9
벨기에	22,000	(13)	0.6	30,500	(14)	2.1
독일	21,000	(15)	0.7	28,300	(16)	1.8
핀란드	21,000	(15)	1.6	31,400	(13)	2.3
뉴질랜드	21,000	(15)	1.2	24,300	(21)	2.0
프랑스	20,000	(18)	0.9	27,300	(18)	1.7
일본	19,000	(19)	0.3	28,300	(16)	1.4
대한민국	19,000	(19)	0.7	23,000	(25)	1.7
슬로베니아	19,000	(19)	4.8	23,300	(24)	5.0
스페인	18,000	(22)	4.0	24,200	(22)	3.5
이탈리아	17,000	(23)	0.7	26,600	(19)	1.3
그리스	16,000	(24)	1.9	23,800	(23)	2.1
이스라엘	14,000	(25)	1.6	25,500	(20)	1.2
체코	13,000	(26)	1.7	20,300	(26)	2.0
포르투갈	13,000	(26)	4.2	18,500	(27)	3.4
에스토니아	10,000	(28)	16.7	17,500	(28)	10.0
폴란드	9,000	(29)	9.7	14,000	(31)	6.1
슬로바키아	9,000	(29)	15.2	16,700	(29)	6.8
헝가리	9,000	(29)	0.6	15,600	(30)	2.1
칠레	8,000	(32)	2.4	11,600	(33)	4.2
터키	6,000	(33)	0.8	11,700	(32)	2.8
멕시코	5,000	(34)	1.2	11,100	(34)	1.2
OECD 평균	19,000		1.7	27,300		2.3

* 각국의 물가 등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됨. 중위 소득은 가구 단위로 집계되었고, 일인당 소득은 GDP의 평균값임.

- (1) 중위 소득 기준 상위 10위권 국가들 중에서 지난 20년 동안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개선된 국가(즉, 평등 정도가 가장 높아진 국가)가 어디인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 (2) OECD 국가들 사이의 중위 소득의 분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자. 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간값 지표를 사용하는 것의 한계에 대해 논하십시오.

주장 1: 중위권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OECD 평균값과 동일하므로 OECD 내의 중위 소득 분포는 평등하다.
 주장 2: 룩셈부르크의 중위 소득은 멕시코의 7배에 달하고 그 격차는 30,000 달러나 되므로 OECD 내의 중위 소득 분포는 평등하지 않다.